

새만금 내부 연결하는 대동맥, 십자형 도로 완성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개통 –



“내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7월)까지
남북도로 2단계도 완전 개통”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및 민간투자 촉진 기대”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은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총연장 27.1km를 6~8차로 규모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새만금 내부간선 기능을 확보하고 주변 용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개통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십자형 도로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세로축인 남북도로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9일부터 개통하였다. 남북도로는 전북 군산(국도 21호선)과 부안(국도 30호선)을 총 27.1km로 연결하는 도로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로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남북도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건설 중이며, 1단계 3공구와 4공구는 각각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가 2단계 1공구와 2공구는 각각 롯데건설, 포스코이엔씨가 맡았다. 이번에 개통한 1단계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동서도로까지 12.7km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2017년 12월 착공 이후 6,010억 원을 투입해 왕복 8차로로 준공했다. 2단계는 동서도로에서 농생명용지를 지나 관광레저용지까지 14.4km(6차선)를

연결하는 구간이며,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1년 6월 국도 4호선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은 기업 유치가 한창인 산업연구용지와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용지를 연결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과도 연계되어 내부개발 가속화는 물론 민간의 투자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DL이앤씨가 준공한 만경대교

DL이앤씨가 전라북도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1단계 구간(제3공구)을 준공했다. 도로 기능성 향상을 위한 설계를 바탕으로 가변속도제어기와 자동



돌발감지시스템, 염수분사시스템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도로를 선보였다. 특히 DL이앤씨는 새만금 만경대교(1,968m) 구간에 세계 최초의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총길이 723m)’를 세워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리버스 아치교는 그 이름처럼 활을 뒤집어 놓은 초승달 모양으로 아름다운 새만금의 물길을 품고 있는 듯한 차별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한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비대칭 상부 구조형식을 채택했다.

앞서 DL이앤씨는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2013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2022년)를 선보인 바 있다. 이어 새만금 만경대교에서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를 완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교량 기술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트라이포트를 연결하는 새만금의 도로

한편, 새만금에는 주요 도로와 함께 항만, 공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0월에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12월 설계비 등 36억 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캠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km)하는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신항만은 해수부에서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건설 중이며,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입철도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2030년까지 구축 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새만금 동진대교 상판 연결 완료, 2단계 개통도 눈앞

새만금개발청과 포스코건설은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의 마지막 연결구간인 새만금 동진대교의 교량상판 중앙 접속부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단절되었던 남북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드디어 연결됨에 따라,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교통 중심축인 십자형(+) 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새만금 동진대교는 총연장이 1,258m에 달하며,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했다. 교량의 상판은 2개의 주탑에서 이동식거푸집을 이용해 양방향으로 4m 단위로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교량상판을 이어가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교량 상판은 주탑별로 48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 시공하였으며, 금번 교량 정중앙 49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로 교량상판 연결을 완료하였다. 사장교 케이블은 주탑별로 총 96개가 설치 완료되었다.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준 새만금개발청과 DL이앤씨(주), (주)포스코이앤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